

모집단위	종 목	문 제
디자인학부 무대미술전공 시미디어 콘텐츠전공	기초디자인	<p>(문제은행 7번, 18번)</p> <p>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,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·디자인 하시오.</p> <p>**주의사항**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. 2.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. 3.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. 4.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. 5.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.
영화영상전공 (연기)	실기 고사 [지정 연기]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소재</div> <div style="width: 85%;"> <p>한번 말해봐. 내가 너 좋아하는 죄밖에 더 있냐? 내가 너 좋아하는 죄로 이렇게 되냐? 내가 무슨 잘못했어?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날 가지고 놀았냐? 니 거짓말 이제 안 속아.. 니가 인간이냐? 어?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냐? 너 진심으로 말하는 데 나 이제 너한테 안 속아. 나 너 이후론 사람 믿을 수도 없고, 무서워서 사람 사귀지도 못해. 니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놔어. 더 이상 나 가지고 놀 생각 마. 난 오늘 이후로 너 절대 안 만나.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 하지 마. 아는 척하면 가만히 안 있을거야. 아니 널 죽일 거야. 너한테 꼭 복수하고 말거야. 그니까 이거 놔. 이거 놓으라구. 잠도 잘 잔다며. 응?</p> </div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margin-top: 20px;"> <div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소재</div> <div style="width: 85%;"> <p>“ (달을 바라보며) 이렇게 앓았으려니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. 아버지는 이렇게 개구리 울어대는 밤이면 언제나 들에 나와 밤이 깊은 줄도 모르시구 앓았는 습관이 있었습죠. 그것이 어느새 이렇게 제 버릇이 되구 말았구요.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됩니다. 돌아가시기 전날에야 비로서 제게두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려 주시드군요. 저는 그때까지는 그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만 알구 있었지요. 아무데 사는 아무 성을 쓰는 이가 어머니라구 알려 주시드군요. 저희 아버지는 저만 데리고 혼자 쪽 हुआ비로 지내셨죠. 고생두 많이 하셨죠. 특히 오른쪽 다리는 늘 절룩이셨지 뭐예요. 공부 못 한게 한이 되셨나 봐요. 무리하게 저를 대학에 보내셨어요. 저두 아버님이 손주가 보고 싶으시다기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일찍 결혼했어요. 아들이 하나 있지요. 세 살인데 막 뛰어다니구 그러는 걸요. 이제 그만 자야 할 시간이네요. 불 끄까요?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.”</p> </div> </div>

모집단위	종 목	문 제
연극전공 (연기)	실기 고사 [화술]	<p>소재</p> <p>옛날에도 연주회를 한 번 열었었죠. 아주 좋은 연주회였어요. 대성공이었죠. 사람들은 내 터치가 아주 독특하고 개성적이라고 했어요. 연주가 끝나자 모두 무대 뒤로 쫓아와서 좋은 음악 들려줘 고맙다며 샴페인을 마셨죠.</p> <p>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? 다음 연주를 하러 내려갔더니 콘서트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. 빗장은 걸려 있고 수위 한 명 없었죠. 극장을 폐쇄한 거예요!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피아노를 치고 팁을 받았죠. 피아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니면서... 날 건드리지 마요. 난 이제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.</p>
		<p>소재</p> <p>왜 그 인간이 죽지 않은 거지? 왜 그 인간이 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? 그는 이제 사십 살에 불과해. 나한테서 남은 돈을 다 뜯어가서 결혼하고 생을 즐기며 거래소에서 투자를 즐기겠지. 난 온갖 재산마저 모두 날리고는, 거지처럼 그를 부러워하며 매일같이 그가 내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들어야 할 거야. “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의 행복을 빚졌습니다. 제발 제가 도와 드리도록 허락해 주세요.” 안 돼, 그럴 수 없어. 파산과 치욕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죽는 거야!</p>
		<p>소재</p> <p>자자, 다들 주목! 지금 이려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? 5분 뒤면 기차가 도착한다고요, 가방 챙겼어요? 티켓은? 자, 다들 내 눈을 봐요. 기적 소리가 들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는 겁니다. 알겠어요? 아니, 그쪽은 왜 아직도 그러고 서 있어요? 제가 아까부터 말했잖아요, 그 보따리는 포기하라고! 설마 그걸 지금 이 난리통에 끝까지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? 제발 정신 좀 차려요. 이건 소풍 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건 탈출이라니까? 이거 놀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다 못 나가요. 책임지고 나중에 찾아줄테니까, 그 보따리는 버려요. 어, 기차 들어와요! 지금이에요, 뛰어요!</p>
디지털만화 영상전공	만화 능력 테스트	<p>※ 아래의 상황 및 주제를 4칸 이상의 칸 형식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되, 문자는 수험생의 신분을 적, 간접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최소한으로만 사용가능함.</p> <p>상황 : 소극적이지만 경제관념이 강하고, 현실적인 큰형 또는 큰 누나와 충동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동생이 단둘이서 어렵게 국내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, 첫 도착지에서 지갑이 분실되는 사고를 겪게 된다.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나머지 여행을 하게 될까?</p>